

※아래의 내용이 對立制約이면 1, 互根互用이면 2, 消長平衡이면 3, 相互轉化면 4로 표기하시오,

- 1) 剛柔相推而生變化 ( )
- 2) 盖陰以吸陽 故神不上脫, 陽以煦陰 故精不下流 ( )
- 3) 故陰主寒 陽主熱, 故寒甚則熱 熱甚則寒, ( )
- 4) 獨陰不生 孤陽不長, 獨陽不生 獨陰不成( )
- 5) 動極者鎮之以靜 陰亢者勝之以陽( )
- 6) 動極者鎮之以靜 陰亢者勝之以陽( )
- 7) 冬至四十五日 陽氣微上 陰氣微下: 夏至四十五日 陰氣微上 陽氣微下.( )
- 8) 四時之變 寒暑之勝 重陰必陽 重陽必陰: ( )
- 9) 陽根于陰 陰根于陽. 無陽則陰無以生 無陰則陽無以化( )
- 10) 陽氣者 一日而主外. 平旦人氣生 日中而陽氣隆 日西而陽氣已虛 氣門乃閉. ( )
- 11) 陽不獨立 必得陰而後成 陰不自專 必因陽而後行 ( )
- 12) 陽生陰長 陽殺陰藏 ( )
- 13) 陽勝則熱 陰勝則寒, ( )
- 14) 陽勝則陰病 陰勝則陽病( )
- 15) 五臟陰也 而陽神藏焉 非五臟之藏 則陽神飛矣: ( )
- 16) 六腑陽也 而陰精化焉 非六腑之氣 則陰精竭矣.( )
- 17) 陰能守則陽秘于內 陽能衛則陰固于外.( )
- 18) 陰道偶 陽道奇。( )
- 19) 陰病治陽 陽病治陰 ( )
- 20) 陰盛格陽 陽盛格陰 ( )
- 21) 陰性靜 故爲陽之守 陽性動 故爲陰之使. ( )
- 22) 陰損及陽 陽損及陰( )
- 23) 陰勝則陽病 陽勝則陰病, ( )
- 24) 陰者 藏精而起亟也 陽者 衛外而爲固也. ( )
- 25) 陰在內 陽之守也 陽在外 陰之使也 ( )
- 26) 陰在內 陽之守也, 陽在外 陰之使也.( )
- 27) 陰在內 陽之守也: 陽在外 陰之衛也. ( )
- 28) 陰中救陽 陽中救陰( )
- 29) 陰虛則陽亢 陽衰則陰成( )
- 30) 益火之源以消陰翳 壯水之主以制陽光( )
- 31) 從陰引陽 從陽引陰( )
- 32) 重寒則熱 重熱則寒. ( )
- 33) 此於對待之中 而復有互藏之道, 所謂獨陽不生 獨陰不成也. ( )
- 34) 天地相感 寒暖相移, 陰陽之道 孰少孰多, ( )
- 35) 寒生熱 熱生寒( )
- 36) 寒者熱之 熱者寒之( )

## 제2절 醫易

### 1. 天理적인 道의 本體

無極 - 太易 - 太初 - 太始 - 太素 - 太極 - 陰陽 - 四象 - 八卦

(변화의 비릇) (氣之始) (形之始) (質之始)                      ↘五行

(未見氣也)                      ↙ 列子の 宇宙生成理論

### 2. 陰陽학설 :

※정의 : 陰과 陽의 相對屬性和 그 消長變化로 ①自然을 認識하고 ②自然現象을 해석하고

③自然規律을 탐구하는 宇宙觀과 方法論

(陰陽 : 자연계와 인간을 파악하기 위한 용어, 陰과 陽으로써 모든 사물이 相互對立하고 相互關聯된 것으로 파악)

### ■ 陰陽의 속성

#### (1) 全一

모든 대상의 내용물은 두 개로 나누어지며 두 개가 합일될 때 그 본체는 완전한 상태를 이루는 全一의 속성이 있다.

#### (2) 待對

어떤 사물이든 모두 상대적으로 존재하며 그 일정한 속성은 陰과 陽의 두 방면으로 나뉜다. 이 상대성의 관계가 연속되면서 대비되는 상대에 따라 상태가 바뀌는 待對의 속성을 지닌다.

#### (3) 統一

陰陽의 상호관계를 관찰하면 陰陽은 相互同根인 하나의 통일체라 할 수 있다. (全一은 陰陽이 분화되기 이전의 모습이고 統一은 陰陽이 분화된 후를 나타낸다.)

#### (4) 分化

陰陽 속에 다시 陰陽이 있다는 속성으로 모든 사물에 내재하는 상호 대립의 연결, 즉 待對의 복잡성을 설명할 수 있다.

#### (5) 消長

陰陽의 상대적 관계는 정지한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相互對抗 相互作用하여 進退消長の 현상을 나타낸다. 따라서 모든 사물에는 반드시 陰陽의 消長변화가 있으며 변화하는 상태에서도 평형의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陰陽의 속성 : 全一, 對待, 統一

陰陽의 발전변화의 속성 : 分化, 消長

陰陽의 特性 : 整體觀(全一的 관점), 恒動觀(恒常變化, 陰陽轉化)

1)陰陽의 基本概念 : ①陰陽 相對屬性 ②陰陽相對屬性的 普遍性 ③陰陽相對屬性的 無限 可分性

2)陰陽學說의 基本내용 : 陰陽互根, 陰陽轉化, 陰陽制對立約, 陰陽消長

① 陰陽互根 : 陰陽은 서로 상반된 機能作用을 갖고 있으면서도 相互依存과 相互爲用이 됨

- 陽根于陰陰根于陽 無陽即陰無以生 無陰即陽無以化(趙獻可 醫貫)

- 獨陰不生 孤陽不長, 獨陽不生 獨陰不成(張介賓 類經)

※ - 陰損及陽 陽損及陰(한편의 耗損이 있을 후 영향을 줌. ex>氣虛로 인하여 血虛가 발생.)

- 陰在內陽之守也 陽在外陰之使也(素問 陰陽應象大論)

陰은 안에 있으면서 陽의 지킴을 받으며, 한편으론 이탈하려는 陽을 잡아줌.

陽은 밖에 있으면서 陰의 使臣 役割을 하며, 한편 陰을 끌어다가 부려먹기도 함.

- 故陽強不能密, 陰氣內絕 陰平陽秘, 精神乃治 陰陽離決 精氣乃絕(素問 生氣通天論)

陽氣는 쉽게 外越함으로 陰氣에 의지하여 秘(固),

陰氣는 內守하되 쉽게 凝滯됨으로 陽氣에 의지하여 平(靜).

=>陰平陽秘 精神乃治 : 陰陽對立消長關係의 정상,

=>陰陽離決 精氣乃絕 : 陰陽互根關係의 파괴.

※ - 從陰引陽, 從陽引陰(특히 鍼灸치료 관련)

- 陰者藏精而起亟也 陽者衛外而爲固也(生氣通天論)

- 陽生陰長 陽殺陰藏(陰陽應象大論, 서로 쓰임이 됨과 서로 분리되어 消亡함)

※ - 陰中求陽 陽中求陰 : 陰陽互根을 운용한 陰陽調整의 治療法(陰陽互損이 심할 때)

陰中求陽 = '善補養者 必於陰中求陽 即陽得陰助而生化無窮'(張介賓)

- 陰陽互根은 실제로 "陰陽의 相對屬性"(ex. 興奮과 抑制, 物質構造와 機能活動)

② 陰陽轉化: 陰陽이 일정한 條件에서 相互轉化할 수 있음을 의미

- 物之生從化, 物之極由乎變 = 生化極變은 사물의 발생, 발전의 규율임

- 物極必反(寒極生熱 熱極生寒, 重陰必陽 重陽必陰) - ex. 晝夜, 寒暑의 교대

=>陰陽轉化는 生理現象을 설명하며, 또한 病機의 轉化를 설명하는 데도 이용됨.

※ 冬至에서 夏至까지의 氣候變化는? 寒極生熱, 陰消陽長

※ 冬至의 기후가 가리키는 것은? 寒極生熱('陽生於冬至 陰生於夏至', '冬至一陽生 夏至一陰生' <類經>)

③ 陰陽對立制約 : 陰陽의 屬性相反, 相互對立=>한 統一體내에서 互단히 相互制約, 相互排斥

- 陰陽사이의 相對的 平衡(全體의 수준의 相對平衡)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

- 陰陽相薄(搏), 陰陽相逐

※ - 陰陽格拒(陰盛格陽, 陽盛隔陰)

- 動極者鎮之以靜 陰亢者勝之以陽

- 剛柔相推而生變化(周易 繫辭)

- 白晝와 黑夜(白晝에는 陽主動 陰主靜..... - 전체 晝夜로 보면 相對平衡)

※ - 陰病治陽, 陽病治陰(壯水制陽, 益火消陰))

※ - 陰勝即陽病 陽勝即陰病(?)

- 相互制約의 원리로 治療에 응용 : 寒者熱之 熱者寒之 - 相對氣運의 過度 亢盛 방지

④ 消長平衡: ㉠陰陽自體의 消長 ㉡ 陰陽 사이의 상호 盛衰변화

- 陰陽消長の 구체적 내용 ㉠ 陰陽은 불균등하게 분포 - 陰陽之氣各有多少 故曰三陰三陽也

㉡ 人體陰陽變화와 自然界陰陽變化는 밀접하게 관련됨

㉢ 正常生理狀況의 人體陰陽은 "陰平陽秘"의 상대적 平衡狀態.

- 消長運動의 기본형식 ㉠ 陰 또는 陽 어느 一方만이 消長 ex. 故陽氣者 一日而主外.....

㉡ 陰陽이 서로 消長 - 陽長陰消 陰長陽消 => 相互制約을 의미함

㉢ 陰陽 사이의 消長이 互長 爲主 - 陽生陰長

㉣ 陰陽 사이의 消長이 互消 爲主 - 陽殺陰藏

- 陽順陰逆(陽은 發散, 上升하고 陰은 下降, 收斂)

3) 음양의 분류

①作用的 분류 陽 : 發生機能, 推進機能 -- 躁, 生, 殺, 主熱, 主升

至陰 : 統合機能

陰 : 抑制機能, 沈靜機能 -- 靜, 長, 藏, 主寒, 主降

②部位的 分類

上下者 陰陽之所在

左右者 陰陽之道路

陽在外 陰在內：자연계에서 음양을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한 標本 - “內外”

③體用的 分類

體：陰陽之生成 本源의 力 形體 存亡之本 造化之本 - 자연계에서 ---> 乾坤

用：陰陽之生殺 消長之權 性用 造化之氣 - 자연계에서-> 水火：음양속성의 徵兆

化：陰陽之化 自成 - 자연계에서 관찰 ---> 形氣

④構成的 分類：‘水火者陰陽之徵兆 陰陽者水火之性情’

水 => 寒冷, 濕潤, 沈降, 寧靜 ==> 陰의 特性을 집중적으로 반영함

火 => 炎烈, 乾燥, 升發, 運動 ==> 陽의 特性을 집중적으로 반영함

陰陽者 血氣之男女 陽爲氣 陰爲味, 陽化氣 陰成形

⑤用語的 分類

太極, 陰陽, 陰中之陽(ex.肝,春,子~卯,後半夜), 陽中之陰(肺). 陰中之陰(腎)

陽中之陽(心, 夏, 上午), 至陰(脾)

■ 陰陽의 相對屬性：同一範疇, 同一段階의 상대 사물이 있어야 陰陽相對屬性의 구별 가능

공간, 위치					시간 계절	사물 성질	사물의 운동	동일 범주, 단계	인 체																			
									부위별						心	肺	腎	肝	脾									
陽	上	左	外	東南	晝	春夏	熱	輕	動	上升	外出	天	日	火	男	背	表, 上	皮毛	腑	四肢	陽中之陽 (牡臟)	陽中之陰	陰中之陰	陰中之陽 (牡臟)	陰中之至陰	氣, 衛	機能	興奮
陰	下	右	內	西北	夜	秋冬	寒	重	靜	下降	內入	地	月	水	女	腹	裏, 下	筋骨	臟	軀幹						血, 營	物質	抑制

※陰陽變化의 법칙

1. 陽化氣陰成形
  2. 陽從左 陰從右
  3. 陽主熱, 陰主寒
  4. 陰陽者 天地之道也 萬物之綱紀 變化之父母 生殺之本始 神明之府也
  5. 陰陽者 血氣之男女 左右者 陰陽之道路 水火者 陰陽之徵兆
- cf) 陰道偶 陽道奇：奇(陽)→全一, 統一의 原理를 가짐,  
偶(陰)→分化, 對立의 原理를 가짐.

※陰陽의 五種特性的 分類

左	前	中央(上下, 內外)	右	後
陰中之陽	陽中之陽	太陰	陽中之陰	陰中之陰
東	南	中央	西	北
肝	心	脾	肺	腎
春	夏	長夏(四季)	秋	冬
木	火	土	金	水
發陳	蕃秀		容平	閉藏
生=發生	長=推進	化=統合	收=抑制	藏=沈靜
發生	隆盛	變化	衰退	封藏
風(發生)	暑(成長)	濕(營養)	燥(呼吸)	寒(排泄)
鷄 鳴에서	平旦에서	不主時	日中에서	合夜에서
平 旦	日 中		黃 昏	鷄 鳴

※ 陰陽의 升降出入

- (1) 陰陽 出入 : - 消耗된 生體物質을 補充하기 위하여 外部로부터 飲食物을 消化 吸收<sup>1)</sup>  
 - 天空에서 酸素를 吸收<sup>2)</sup>  
 - 代謝에 使用되고 난 후의 糟粕을 排出한다.  
 ----> 新陳代謝, 總代謝, 出納代謝 : 陰陽 出入.  
 陰陽出入으로 平衡이 流動되나 生命은 恒常 均衡을 維持한다.  
 → 生長壯老已의 形體代謝(人體生命活動)가 實現된다.
- (2) 陰陽 昇降 : 出入代謝過程에서 얻은 最終産物이 體內에서 ENERGY로 使用되고  
 熱이 되어 放出되면 新生한 熱이 代替하여 體溫을 維持하니  
 이는 (寒)熱代謝로서 陰陽 昇降이라 한다.  
 → 生長化收藏의 ENERGY 機能 代謝 (人體生理現象)가 實現된다.  
 → 寒熱의 兩勢力이 서로 對立 狀態로 存在하여 平衡 維持.

※ 神機와 氣立

- ┌ 出入廢則 神機化滅 ⇒ 無生長壯老已  
 └ 昇降息則 氣立孤危 ⇒ 無生長化收藏  
 ┌ 根於中者 命曰神機 神去則機息  
 └ 根於外者 命曰氣立 氣止則化絕

4) 陰陽학설의 醫學的 運用

①人體組織構造의 설명 :

■ 陰陽의 屬性분류(주요 사항 발췌)

※八要脈 : 浮沈遲數滑澁虛實

	組織構造				五臟	脈象	四氣	五味	계절	診斷
陰	筋骨	五臟	血	營	脾肺腎	沈小澁遲虛	寒涼	酸苦鹹	秋冬	惡寒 口潤不渴
陽	皮毛	六腑	氣	衛	肝心	浮大滑數實	熱溫	辛甘	春夏	惡熱 口乾而渴

②生理方面 :

- ‘陰者藏精而起亟也 陽者衛外而爲固也(소문 生氣通天論)  
 ┌ 陰 ┌ 陰은 物質의 貯藏을 대표하며 陽氣인 에너지의 근원이 됨  
 │ └ ENERGY化하여 生理活動 外部活動을 可能하게 함  
 └ 陽 ┌ 陽은 機能活動을 대표하여 衛外로써 陰精을 固定함 : 陰精을 固守, 體溫維持  
 └ 內部 臟器를 단단하게 護衛하고 臟腑機能活動과 人體活動이 可能하게 하며  
 이 힘의 方法은 免疫機能을 維持하고 體溫을 維持하므로써 가능해진다.  
 卽 生命活動을 護衛하고 간직하게 한다. 固密 閉密 緻密해야 한다.

※ 陰精은 陰氣로 代表되는 物質

陽氣는 陰精의 化生에 依해 생김

- ‘陰平陽秘 精神乃治’ : 陰陽의 動態의 平衡狀態(生理的 現象狀態)  
 - 陰陽均衡 : 陰陽 雙方의 力量對比가 平衡, 調和되고 安定된 상태

③病理方面 : 偏盛偏衰, 陰陽互損, 陰陽格拒, 陰陽亡失

- a. 偏盛 - 陰勝卽陽病(陰은 陰寒의 邪氣, 陽은 陽氣)  
 陽勝卽陰病(陽은 陽熱의 邪氣, 陰은 陰液)  
 陽勝則熱

1). 地食人以五味

2). 天食人以五氣

陰勝則寒(소문 陰陽應象大論)

陽盛則外熱 : 上焦不通利, 則皮膚緻密, 腠理閉塞, 玄府不通, 衛氣不得泄越, 故外熱.

陰盛則內寒 : 厥氣上逆, 寒氣積於胸中而不瀉, 不瀉則溫氣去寒獨留, 則血凝泣, 凝則脈不通, 其脈盛大以澁, 故中寒.(素問 調經論)

b. 偏衰 - 陽虛則外寒 : 陽受氣於上焦, 以溫皮膚分肉之間. 今寒氣在外, 則上焦不通, 上焦不通, 則寒氣獨留於外, 故寒慄.

- 陰虛則內熱 : 有所勞倦, 形氣衰少, 穀氣不盛, 上焦不行, 下脘不通, 胃氣熱, 熱氣熏胸中, 故內熱

c. 陰損及陽 陽損及陰 : 陰陽互根互用하므로 陰陽偏衰가 심해지면 발생

- 無陽即陰無以生, 無陰即陽無以化

d. 陰盛格陽 陽盛隔陰 : 陰陽은 相互對立制約하므로 한 쪽이 지극하게 偏盛, 偏衰하면 발생

※疾病發生 觀點 : ①外因의으로 發生 : 邪正鬭爭의 觀點 - 人體의 抵抗力과 外來病因의 관계

②內因의으로 發生 : 陰陽論의 觀點 - 人體 內部의 矛盾

#### ■ 陰陽의 偏盛偏衰 주요내용

失調내용	병리상태		症狀	治療
陰陽偏勝	陽勝則熱, 陽勝即陰病	實熱證	高熱 汗出 煩躁 脈數	熱者寒之
	陰勝則寒, 陰勝即陽病	寒實證	面白形寒 脘腹冷痛 瀉下清稀 舌淡 脈沈	寒者熱之
陰陽偏衰	陽虛(則寒) 虛寒	虛寒證	面色蒼白 畏寒肢冷 神疲倦臥 自汗 脈微 (畏寒肢冷, 精神萎靡, 水氣停留가 辨證要點)	強壯한 溫熱法 益火消陰
	陰虛(則熱) 虛熱	虛熱證	潮熱 盜汗 五心煩熱 顴紅 口舌乾燥(舌紅少津) 心煩 眩暈 不眠 脈細數 (陰虛發熱, 乾燥, 陰虛不靜而動이 辨證要點)	滋補한 寒涼法 壯水制陽

※참고(氣血辨證)

	主 症		
氣虛	神疲乏力, 少氣懶言, 氣短聲低, 自汗, 脈軟無力	推動 및 固攝기능 감퇴(氣不足)	陽虛는 溫煦機能감퇴 (氣虛가 甚해진 상태)
血虛	面皮膚舌色이 萎黃淡白, 目澁, 頭暈眼花, 心悸, 健忘, 失眠, 多夢, 手足麻痺	濡養機能減退	陰虛는 滋養 寧靜기능감퇴

◎ 陰陽學說을 이용하여 人體의 病理變化를 설명하시오 (偏盛, 偏衰, 陰陽互損, 陰陽格拒 등)

\*\*\* 陰陽의 偏盛偏衰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 寒熱

\*\*\* 陰陽格拒 : 陰陽이 相互對立制約하므로 한쪽이 지극히 偏盛, 偏衰하여 相互格拒

- 陰盛格陽 -- 眞寒假熱 ---> cf)戴陽 : 下焦가 虛寒(陽虛陰盛)하여

陽氣(虛陽)가 위로 떠오름. 下部는 眞寒, 上部는 假熱의 증상(格陽은 內外)

- 陽盛格陰 -- 眞熱假寒(陽厥, 熱厥)

※ 戴陽證에서 볼 수 있는 증상은? 兩顴潮紅, 下利清穀(上熱下寒의 症狀表現)

虛熱證은? 兩顴潮紅

④ 診斷方面 : 韓醫學의 진단은 診斷(四診), 辨證(八綱)으로 總結됨

：“善診者 察色按脈 先別陰陽”(素問 陰陽應象大論)

※ 八綱辨證：陰陽이 八綱의 總綱이 됨

└─八綱：陰陽 寒熱 表裏 虛實

└─各種 病症에 出現하는 病狀이 複雜할지라도 모두 八綱으로 分析 歸納이 가능

└┐陰陽：病症의 類別

└┐表裏：病部位의 深淺

└┐寒熱：疾病의 性質

└┐虛實：邪氣와 正氣의 消長盛衰

└─陰陽 表裏 寒熱 虛實의 四組의 矛盾은 相對的이며 相互 密接한 聯系가 있다.

※ 四診：望聞問切

■ 질병진단에 있어서 陰陽 응용 (cf. 八要脈：浮數實滑 - 沈遲虛澁)

	색깔	色澤	聲音(목소리)	호흡	증상			脈象			
					寒熱	潤燥	動靜	부위	動態	속도	脈의 형태
陽	黃/赤	선명함	높음, 낭랑, 말 많음	힘참, 氣粗	惡熱	口乾而渴	躁動不安	寸	至함	數	浮大洪滑
陰	靑/白/黑	어두움	낮음, 무력, 말 적음	미약, 氣怯	惡寒	口潤不渴	蹇臥靜默	尺	去함	遲	沈澁細小

● 질병진단에 있어서 陰陽이 總綱인 이유는?

정확한 진단은 望聞問切의 四診에 의해 얻어진 자료들을 陰陽변화의 규율로써 분석, 종합하여 疾病의 所在, 性質, 正邪의 虛實등을 판단하는데 있으며, 이는 모두 陰陽으로 총괄이 가능함.

四診八綱		陽	陰
八綱		表, 實, 熱	裏, 虛, 寒
四診	望五色	紅, 黃	靑, 白, 黑
	聞聲音	氣粗, 聲高	氣弱, 聲低
	問診	發熱, 口渴, 便秘	口不渴, 便溏
	脈診	浮大滑數	沈細遲澁

⑤ 治療方面：陰陽의 相對制約의 관계 이용 - ‘損其有餘 補其不足’(治法, 用藥의 근거)

- 치료의 기본요점：陰陽失調상황을 관찰 → 음양偏勝偏衰를 조정 → 정상적 消長平衡상태 회복.
- 음양조정의 기본원칙：有餘하면 瀉하고, 부족하면 補함. → 寒者熱之/熱者寒之, 虛者補之/實者瀉之
  - 陰病治陽 -- 益火之源 以消陰翳(益火消陰) - 陽虛陰盛：諸熱之而寒者取之陽(補陽)
  - 陽病治陰 -- 壯水之主 以制陽光(壯水制陽) - 陰虛陽亢：諸寒之而熱者取之陰(滋陰)
- ‘陰平陽秘 精神乃治’
- 損其有餘 補其不足(治法, 用藥의 根據)
- 虛者補之 實者瀉之

## 제6절 外科

### 1. 개술

#### ● 외과의 정의, 범위 및 특징

- 가. 외과통일의 정체관점으로 외과질병을 인식한다.
- 나. 발병원리상 邪氣와 正氣 양방면의 작용을 중시한다
- 다. 진단상 변증과 변병의 상호결합을 강조한다
- 라. 치료상 국부와 정체를 모두 강조한다.

### 2. 외과질병의 분류

- 癰(부스럼 절) : 천표, 국소적 홍종한 화농성 질병
- 癰(악창 웅) : 외옹(홍조무두, 肌肉上이나 皮下에 있다, 범위 넓다)  
내옹(내장, 국한성의 동통)
- 疽(등창 저) : 有頭저, 無頭저
- 疔(정 정) : 面部疔瘡, 手部疔瘡, 紅絲疔, 爛疔
- 發(쏟 발) : 彌漫性 紅腫동통
- 痰(가래 담) : 진액응취(舌下痰包, 足發背, 乳發), 流痰(子痰의 潰한 후)
- 癭(혹 영) : 頸前 결후부, 氣영 肉영 石영
- 瘤(혹 류{유}) : 기혈이 응결. 기유 육유 골유
- 癌(암 암) : 단단. 潰후 뒤집어진 꽃모양
- 瘡(부스럼 창) : 피부에 나타나는 丘疹. 疱疹과 함께 潰破후 미란
- 痔(치질 치) : 모든 구멍에 생기는 혹 (耳치 鼻치 內치 外치)
- 漏(샬 루{누}) : 瘡口가 아물지 않고 膿水가 漏처럼 흘러 내리는 것
- 流注 : 膿毒이 기혈을 따라 流行停注
- 癰瀝 : 頸部양측의 皮下종괴
- 丹毒 : 홍종동통, 경계뚜렷. (抱頭火丹, 腿遊風, 赤遊丹)
- 疳(감질 감) : 점막상에 살생하는 천표의 궤양 (口감, 牙감 下감)
- 癰(웁 선) : 피부표면에 솟아오른 것

### 3. 병인병리

- 가. 외과질병의 병인은 대개 毒이라한다.  
의종금감) 癰疽原是火毒生

- 나. 외과질병의 발병원리와 병인상의 규율

- 다. 외과질병의 병리기초

소문 생기 통천론) 營衛不從 ~癰腫

### 4. 외과질병의 변증

- 가. 변음증, 양증

陽證 : 웁 저 정 절 단독 유주

陰證 : 영 유 癌 脫疽 癰癰 流痰



나. 변경락부위

창양이 소속된 장부경락에 인경약 사용

다. 변종양궤양

㉠ 변종양 : 화 한 허 실 기 혈 풍 습

㉡ 변동통 : 한 열 허 실 혈 기 풍 농

○虛통 : 만지면 완화

○實통 : 누르면 더 아픔

○血통 : 통처고정 찌르는 듯, 베는 듯

○氣통 : 유주, 아프다 안아프다

○風통 : 유주

○농통 : 터질 듯, 났는 듯

㉢ 변궤양 : 형태와 색택을 근거

㉣ 변농액 : 농의 유무, 질, 색택

라. 변선증·악증

五善 七惡

마. 외과질환의 치료

㉠ 內治法

외과진전) 초기에는 消散, 중기에는 排托, 말기에는 溫補를 위주로 수렴

消法

종양초기에 사용, 毒氣가 盛하고 正氣가 아직 虛하지 않아 祛邪를 목적으로 삼는 것,  
국부의 병소를 소산시켜 없애주고, 化膿潰爛 및 수술의 고통을 피하게 해주는 것  
解表散邪 攻下通裏 清熱解毒 溫經散寒 調氣散結 活血祛瘀 火痰軟堅 除濕消腫

托法

정기를 돕고 독사를 외출시켜 독기의 내함을 방지

清熱托裏 溫經托裏 托裏透膿 托裏排膿

生黃芪를 主藥으로 삼는다

의중금감)

癰疽瘡瘍을 살핍에 형세가 未成한 것은 內消之法을 쓰고

형세가 已成한 것은 內托之法을 쓴다

補法

궤양의 후기에 독기는 비록 풀어졌으나 정기 역시 허하거나 혹 병의 만기에 사독이 深重한데 정기가 衰竭한  
자에 쓴다

補益氣血 滋陰補陽 調理脾胃

㉡ 外治法

薄貼 : 膏藥

圍箍<sup>3)</sup>: 敷藥, 증양을 소산

---

3) 圍箍 위고

散劑 : 消散·解毒·化腐·腐蝕·生肌·止血

湯漬 : 熱湯담지, 冷湯담지

灸療 : 膈蒜灸, 附子餅灸

火針 : 粗火針, 속칭 紙捻

砭鎌 : 삼릉침 매화침으로 출혈

刀法 : 切開배농

引流法: 棉紙引流, 금속도관 흡농